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사귄 (요일 1:5-10)”

청소년/청년/장년 가정이음 예배 순서지 - 10월 셋째 주

오늘 이야기

오늘의 일상을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가족과 함께 오늘의 질문 중 하나를 골라 나눠주세요.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다른 사람 앞에서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경 이야기

성경을 읽는 것은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윤독)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서 3번 읽어요.

(요한일서 1장 5-10절)

5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0월 생활미션

알상에서
하나님나라소망하기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 보세요. 종이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내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믿음의 모습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그 소망이 일상 속에서 드러나도록 함께 기도하면 미션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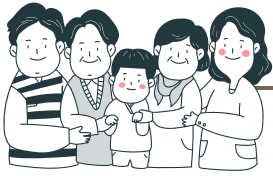
** 미션 수행 후, 부서 담당교역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 인증해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말씀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실제 삶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되나요?

- 뒷 장에 있는 매일 기도를 통해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10월 셋째 주

매일 기도

주일

하나님 아버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월요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잘못을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먼저 사과하고, 주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화요일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비난하지 않고, 우리도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수요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며 하기보다 부족함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목요일

하나님 아버지, 잘못을 하고도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금요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잘못된 일이 부끄러워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토요일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주님께 내어놓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